

문헌분류법에서의 주류설정의 원리*

A Study on Principle and Theory of Main Classes in the Library Classification

남 태 우(Tae-Woo Nam)**

목 차

1. 서론	3.2 주류설정의 논리성 대 실용성 이론
2. 이론적 배경	4. 문헌 분류법에서의 주류의 설정 및 원칙
2.1 회람시대의 학문의 분과	4.1 분류법에서 주류의 정의
2.2 중세시대의 학문의 분과	4.2 주류 설정의 규칙
2.3 근대의 학문의 분과	4.3 주류의 순차
2.4 학회의 발전과 학문분과	4.4 주제설정의 문제점
3. 지식분류와 문헌분류간의 상보성	4.5 학문적 주류에 대한 대안
3.1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와의 상보성 원리	5. 결론

초 록

지식분류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의를 내린 후 학문명칭을 부여한다. 문헌분류법은 지식기반 원칙이므로 학문명칭을 실용성 우선으로 하여 주류명을 설정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분류법도 지식의 최초의 구분은 주류(main classes)를 창출하는 일이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학문분류와 등가이다. 그러나 주류의 설정은 지식구분과 동일한 순차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류를 구성하는 일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느 분류법이든 두 가지 관념이 기본이 되는데 군집화와 순차화이다. 그렇다면 군집화는 주류명을 부여하는 단계라면, 순차화는 주류순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헌분류법에서 각각의 주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류설정의 원칙이나 이론 등은 전혀 연구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표의 총체적인 구조의 근거가 되는 주류의 설정원칙과 그 논리를 연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inciple and theory of main class in a Librar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ayers, "The foundation of the library is the book: the foundation of librarianship is classification." We looked at the between scientific and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and at the fact that bibliographic scheme is usually an aspect classification. That is to say, the organization of topics is based on areas or activity, and the first division of the scheme is into disciplines or subject domains. This first division of classification creates what are called main class. The sequence of main classes is also important. A rough definition of a main class is that it corresponds to a single notational character. Main classes usually equivalent to traditional disciplines. What constitutes a main class will vary from one classification to another. The order in which the main classes are listed is often discussed at the theoretical level, and some orders are considered to be better than others.

키워드: 분류법, 문헌분류법, 지식분류법, 지식분류법 대 문헌분류법, 주류, 주류설정의 원칙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Knowledge Classification, Main Classes,
The Order in which the Main Classes are Listed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2월 15일

1. 서론

지식을 정교화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지식의 분류이다. 새로운 지식을 전통적 틀에 맞추려고 했던 경우이든, 아니면 거꾸로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려다가 장기적으로 틀 자체가 방식들이 되었던 간에 분류라는 법칙은 중요하게 작용하여 왔다. 인간사회의 범주들은 한 가지 일정한 형태로만 고정시킬 수는 없다. 이 범주들은 끊임 없이 만들어졌다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E. Durkheim은 “분류체계들은 끊임 없이 만들어졌다가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Durkheim 1912) 있다고 하였다. Durkheim 이후로 인류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범주들 또는 분류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의 사회적 맥락을 파고들어 왔다는 점에서 지식의 ‘인류학’ 쟁점으로 부를만한 하다.

‘지식의 인류학’을 다른 분류학자들은 그 본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B. Buchanan은 1979년에 발행한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의 1989년 한국어판(문헌분류이론) 서문에서 “아마도 패턴과 순서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간들이 타고난 모양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분류하는 동물(classifying animal)’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것이 혼돈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전하다는 망상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생겨나는 듯하다.”(Buchanan: 정필모, 오동근 1989, 11)라고 분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혼돈과 분류간의 상관관계

를 밝히고 있다.

상기에서 ‘인간을 분류하는 동물’로 분류하듯이 인간의 분류의지는 선천적 본능으로 인식된다. 구조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체는 통정되지 않는 밖의 세계(즉 카오스)에 적응되지 않는다. 즉, 유기체적 통일성을 원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인간의 인지구조내로 통정된 지식계를 원하는 것이다. 실재나 이론 모든 면에서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류라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와 수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족보의 계보’는 분류개념의 최고 즉, ‘분류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은 백과사전적 또는 지식우주의 등가물이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는 지식세계는 혼돈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과 지식의 축도를 만들기 위한 즉, 책들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식분류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사고에 우선한 문헌분류를 구상할 수밖에 없다. 지식의 조직화는 실용성과 이론사이에서 갈등을 겪지만 실용성이 우선권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E. R. Richardson이 “문헌분류는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며, 분류는 노동절약 장치이다(Richardson 1964, v)라고 강조한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W. C. B. Sayers는 “분류란 지식에 대한 키(key)이다(Maltby 1978, 16)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서관의 기본은 도서이며, 라이브러리언십의 기본은 분류이다(Maltby 1978, 23)라고 천명하고 있다. ‘키’란 어떤 지식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는 문헌정보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Richardson

이 “도서는 이용을 위해 수집되며, 그것은 이용을 위해 관리되며, 그리고 분류의 동기는 이용에 있다”(Richardson 1930, 26)라고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또한 G. Naude는 문헌정보학계의 기념비적 저서인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eque*』의 제7장에서 분류문제를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다(Naude 1950, 63-69). 여기서 병졸들을 모아 놓았다고 군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책만 쌓아놓았다고 다 도서관이 아니라고 선언하고는 밀라노의 유명한 암브리아나도서관은 주제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책들은 “뒤섞인 채 쌓여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덕스러운 분류체계도 비판했는데, 그에 따르면 분류의 목적은 “힘들이지 않고 번거로움 없이 확실하게” 책을 찾는 데 있다고 하였다. Naude는 이런 이유로 우선 신학, 의학, 법학 세 학부에 이어 ‘역사학, 철학, 수학, 고전문학, 기타’의 순서를 제시했다. Naude의 이런 주류의 배열방식은 다분히 중세 대학교에서 학과목으로 채택한 3학4과의 분류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D. N. Dutta는 “문헌분류를 지식의 구조적 조직화(Dutta 1978, 40)로 인식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식조직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분류이다. 분류는 지식의 세계를 어떤 체계적인 질서로 조직화하는 행위이다. 이 조직화는 아이디어의 서술적 및 설명적 틀과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의 구조를 제공한다. 분류체계는 지식과 지식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문헌분류란 ‘지식의 과학적 조직화’를 원조할 뿐만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자료의

분류를 지식조직화 또는 지식분류를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분류는 지식구분에 기반한다. 도서관에서 자원 또는 자료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학문 또는 주제 분야를 기본으로 하는 주제 접근을 통해서이다. 주제는 그 자료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이다. 학문분야는 특정한 접근방법을 밝히는 관련된 지식의 본체이다. 학문분야와 주제의 개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구별되지만 상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식구분의 시작은 지식계를 주류(main class) 즉 기본류로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문헌분류법에서도 각각의 주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할 수는 없다. 분류법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며 체계적인 분류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CC마저 주류설정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도 발전하고 점차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주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현대 문헌분류표의 주류수도 점차 증가해 왔다. 주류의 전개에 있어서 19세기 말기에 창안된 DDC는 주류가 10개였으나 20세기 초인 1904년에 개발된 LCC는 주류가 21개로 늘어났고, 그 후 1933년에 편찬된 CC는 26개의 주류로 증가했으며, 그보다 3년 후인 1936년에 편찬된 Bliss의 BC는 주류가 35개로 증가하였다. 그 후 각각의 분류표는 개정이 되면서 주류가 LCC의 경우 하위류를 포함하여 70여개로, CC도 1960년에 개정된 6판에서는 47개로 증가하고, 1987년 발간된 7판에서는 주류가 전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이 확장으로 주류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류 설정의 원칙이나 이론 등은 전혀 연구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표의 총체적인 구조의 근거가 되는 주류의 설정원칙과 그 논리를 연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헌분류표는 지식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원칙은 대부분의 분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학문분과의 역사적 발전계적을 축약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학문의 발전적 세계에서 유럽의 특정 도시들이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은 주요 도서관들의 지리적 분포에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중세의 수많은 수도원도서관 그리고 근대의 옥스퍼드의 보들리안 도서관 등 대학도서관들의 부흥과 현대의 도시들을 끼고 발전된 공공도서관들은 학문발전과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학문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분과화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편의상 시대적 구분을 고대 희랍시대, 중세, 근대 그리고 학문이 고도로 분화되기 시작한 학회의 발전과정과 그리고 현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학문의 분과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E. C. Richardson과 H. E. Bliss가 주장한 '지식(학문)기반 문헌분류의 원칙'(Richardson 1964,9-22)(Bliss 1929, 170-187)에서 출발한 것이다.

2.1 희랍시대의 학문의 분과

고대 희랍시기에는 학문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개별학문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했다. 학문계가 희랍에서 태동하던 초기에는 그 대상이 융합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일반적인 특성만이 정립되는 양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대한 분류방식은 당시에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정시대의 학문 분류방식은 당대에 이루어진 학문의 발전을 반영하게 된다.

Platon은 인간 영혼의 상태를 억측(pitís) · 견해(doxa) · 계산능력(dianoia) · 이성(nous)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대상세계를 대응시켰다. Aristoteles는 학문의 미공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 · 물리학 · 생물학 · 심리학 · 윤리학 · 국가학 등 다방면의 영역구분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고였을 뿐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지식이 당시에 정립된 것은 아니다. 그는 대상영역의 성격 및 목적과 관련하여 즉, 지적인 작업의 목적이 무엇이나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이론학(theoretike episteme: 자연학 · 수학 · 형이상학) · 실천학(prakike episteme: 정치학 · 윤리학 · 경제학) · 제작학(poietike episteme)의 세 분야로 분리시켰다. 이론적 앎은 제작적 · 실천적 앎과는 달리 앎 자체가 목적이고, 앎 너머의 어떤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실천적 앎은 좋은 실천을 목적으로 삼고, 제작적인 앎은 훌륭한 제품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차이가 있다.

희랍시대의 제 학문이 포괄적으로 융합되어 있었고, 그 분류법 역시 이론적인 근거가 불확실

하고 단순하였기 때문에 분류라기보다는 단순한 나열 이상의 것으로 볼 수 없다. Aristoteles의 구분이 이후의 분과학문 발전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도 역시 철학 내에서 구분 가능한 분과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지나치게 학문위주의 분류방식이라는 것이다.

2.2 중세의 학문의 분과

중세에는 학문이 정체상태에 빠진다. 학문적인 분화라는 것은 선형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학문을 수행하면서 지식의 논리적인 구조가 정련화되는 것과 병행해서 서로 분리가 불가피할 때 그들은 서로 분화된다. 다만 중세가 시작되는 초창기에 고대 회랍의 학문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지중해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하학·천문학·물리학·의학·건축학 등의 제 과학이 싹트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과정은 중단되고 모든 학문은 카톨릭교회의 엄한 통제하에 부속되었다.

중세에는 이처럼 모든 학문이 카톨릭교회의 엄한 통제하에 들어가 회랍철학의 근본개념은 기독교신학을 옹호하는 데에만 이용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보편적인 체계를 완성한 스콜라철학의 학자들도 신앙은 이성에 앞서서 학문적인 사색을 지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문이 분화·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문의 분류도 고대의 것을 정리·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은 철학의 전 체계를 논리학·자연철

학·윤리학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전통을 오랫동안 답습하였다. 중세의 대학에서는 교과목의 분류상 3학(trivium: 문법·논리학·수사학)의 세 가지 형식과목과 4과(quadrivium: 기하학·산수·천문학·음악의 네 가지 내용과목)라는 서로 다른 전공을 인정했지만, 3학과 4과 사이의 종류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강조된 것은 아니다.

2.3 근대의 학문의 분과

암흑시대가 지나고 중세의 봉건사회가 붕괴되는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먼저 자연과학의 제 부문이 철학의 모태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기에 사회의 분화는 곧 학문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에 걸쳐서 학문세계를 독점하다시피 하던 철학의 영역은 차츰 축소되고 대신 분과학문의 세계가 확대되어 나갔다.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학문은 매우 빠른 속도로 포괄적인 융합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실질적인 분화과정을 밟는다. 오늘날 분과학문은 크게 구분해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과학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원리를 택할 때 우리는 대체로 자연과학이 그 분과학문의 성격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의 역사는 길다고는 하지만, 그 동기면에서 주로 자연과학의 선동과 도전을 받아들여 새로운 면모와 입장을 정비하는 과정이다.

Denis Didrot(1713~84)는 프랑스의 문필가이자 철학자로,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이 편찬한

“백과사전 또는 문인들에 의해서 씌어진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이성적 사전”(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par une société de gens de lettres)의 편집장을 맡았다. 1745년 출판인 르 브르통은 이프레임 체임버스의 ‘Cyclopaedia’의 프랑스판을 출판하려는 생각으로 Didrot를 만났다. Didrot는 뛰어난 수학자 D’Alembert와 공동편집을 맡아 수록영역을 넓히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견해를 담음으로써 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중세 신의 품안에서 아직 미지각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이성의 빛을 던져주고, 구질서의 편견이나 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계몽주의의 완결판인 ‘백과사전’의 편찬을 주도적으로 총괄했던 Didrot였다. 기존의 사고체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질서를 기획했던 이 백과사전과 학자는 또 개인적으로 생물과 화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간파하고, 특히 유물론자로서 현상의 총체적 이해, 현상들의 내적 연관성,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우주관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작물을 생산했다.

Didrot는 헌신적인 문학과 과학자 성직자를 모아 같이 일했는데, 이들은 모두 지식을 발전시켜 교회와 정부에 등지를 틀고 있는 반동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학문을 통한 자유의 확대’를 주창한 Didrot의 백과사전과가 프랑스혁명의 토대가 됐을 만큼 백과사전은 지난 200여년간 ‘지식의 보고’ 구실을 해왔다. 후일 이 사전을 일러 ‘학습의 보고’ 또는 ‘지식의 요약’이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의 『Encyclopaedia Britannica』가 발간

되도록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지식의 배열에 대해서 D’Alembert는 백과사전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백과사전에서 정보를 배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방식이 있다(적어도 서구에서는). 첫 번째는 D’Alembert가 ‘백과사전적 원칙’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예의 ‘지식의 나무’처럼 주제별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의 경우를 두고 D’Alembert는 ‘사전적 원칙’이라고 했는데 주제들을 알파벳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의미의 자연과학은 16세기 천문학의 출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천문학은 자연의 제 운동 가운데서 가장 단순한 운동행태를 지닌 현상의 질서를 수립하는 초보적인 물리학적 개념과 이론을 먼저 제시하였다. 근대과학이 시작된 16세기 중엽부터 100여년 동안의 과학적인 탐구는 Newton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체계화되는 일대 전황기를 맞이한다. 자연과학적 지식체계를 수립하고 정당화시키는 방법론이나 각종의 연구기기가 등장하였다. 예컨대 F. Bacon은 중세의 스킨라적인 방법론을 비판하고 근대의 과학적인 방법을 제창하였다. 또한 그는 Aristoteles의 『Organon』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리학으로 『Novum Organum』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종래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사변에 대한 탐닉을 문제시하고 ‘실험’에 의해 개개의 사례를 비교하고 고찰하는 이른바 과학적 귀납법을 제창하였다.

지식의 분류문제에 관해 Bacon이 제시한 해결책은 『Novum Organum』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는 Aristoteles를 대체하겠노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던 Bacon다운 짓이기도 했다. Bacon은 기억, 지각, 상상 등 정신의 세 작용을 지식분류

법의 기초로 삼았다. 실제로 17,18세기의 교과 과정과 도서관, 백과사전들도 검토해 보면 이 기간에 무수히 재분류가 시도되었지만 Bacon의 방식이 가장 성공적이었다.

2.4 학회의 발전과 학문분과

근대과학의 발전에 공헌한 또 다른 한 요인은 학회의 역할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17세기 초에는 연구자를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학회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학회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연구 결과의 발표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럽에서 조직화된 사회활동으로서의 과학은 17세기에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이제 개인으로 고립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회를 조직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인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중세나 현대와는 달리 근대 유럽의 대학은 과학 활동의 중심이 아니었다. 대학은 새 과학에 반대했고 그래서 과학운동은 학회가 중요한 몫을 맡았다. 이렇게 과학학회가 공동체 과학 활동의 중심을 이룬 경향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과학학회가 가장 먼저 생긴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자연의 신비 아카데미(Accademia Secretorum Naturae)는 1560년대 나폴리의 Baptista della Porta의 집에 모였으나 얼마 후 무술과 관련된 혐의로 폐쇄되었다. 다음, 스라소니 아카데미(Italian Academy of the Lynx)는 1601년부터 로마에서 활동했다. 32명의 회원 가운데는 Galileo Galilei가 포함되었다. 휴머니스트

들의 문학그룹을 본뜬 비공식적인 구조를 가졌고 자연철학에 관한 토론을 주로 했다. 1630년 후원자 Federigo Cesi 공작이 죽자 학회도 문을 닫았다.

실험 아카데미(Accademia del Cimento)는 1657년 피렌체에서 생겨났다. 메디치가(家) 형제 페르디난드 2세 대공과 레오폴드가 후원하였고 회원은 V. Viviani, G. Alfonso Borel, F. Redi (1626-1697) 등 약 10명이었다. N. Copernicus의 우주론이 금지된 뒤여서 주로 실험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1667년 레오폴드가 추기경이 되자 해산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퓨리턴 목사 John Wilkins가 1644년 런던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Robert Boyle 등 젊은 과학자들의 그룹 철학대학을 이끌었다. 그레شم 칼리지(Gresham College)가 집회 장소였고 10명으로 된 이 모임은 보이지 않는 대학(Invisible College)이라 불렸다. 그는 2년 뒤에 옥스퍼드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과학 클럽 철학회(Philosophical Society)를 만들었다. 공화정 기간에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나 공적인 과학기구를 창립할 필요가 커졌다. 1660년 과학자들은 물리·수학적 실험학문의 진흥을 위한 대학을 창립하고 Wilkins를 의장으로 뽑았다. 1662년 찰스 2세는 자연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런던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the Improvement of Natural Knowledge)를 정식 발족시키는 헌장에 서명했다. 처음에 회원은 약 100명이었고 F. Bacon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664년에는 전문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8개 위원회를 구성했고 1665년부터 회지 『철학회보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를 내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666년 왕립과학 아카데미(Academie Royale des Sciences)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회원은 16명을 넘지 않았고 모두 직업적인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왕에게 월급을 받았고 장관들이 내준 문제들을 연구했다. 17세기말까지 30명의 회원이 추가로 임명되었다. 회원들의 특전과 권한에 상당한 차이를 두는 계층제가 채택되었다. 프랑스혁명 후 '왕립'이 떨어져 나가고 재편되어 회원들은 완전히 평등한 자격을 얻었다.

독일에서는 17세기에 두 학회가 생겼으나 오래가지 못했고 1800년에 Gottfried W. von Leibniz의 노력으로 베를린 과학아카데미(Berlin Preus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가 설립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1724년에는 포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제국 과학아카데미(Academia Scientiarum Imperialis Petropolitanae)를 세웠다. 이 둘은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를 본뜬 것으로서 과학의 뿌리가 깊지 못해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베를린의 과학아카데미 간부들은 프랑스 계몽철학자들로 채워졌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스위스 과학자들이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1743년 필라델피아에 미국 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왕립학회를 본 따 만든 것으로 과학자 및 다른 관심있는 사람들의 자급적 모임이었다.

19세기에 과학의 전문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학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에는 지질학회(1807), 천문학회(1820), 화학회(1841)가 창립되었고 미국에는 미국 화학회(1876), 미국

수학회(1888), 미국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회(1897) 등이 잇달아 결성되었다. 또한 1823년 전국적 과학조직인 독일과학자협회(Deutscher Naturforscher Versammlung)의 결성에 자극받아 영국과학진흥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1832년과 1848년에 각각 태어났다.

한편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서 근래에 현저하게 발전되었다. 법학·경제학·사회학·역사학·철학·언어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학문은 연원을 따지면 고대 희랍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 자연과학보다 늦게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17세기의 '과학혁명'의 시기를 통하면서 새로운 분과학문들이 출현하였다. 새롭게 천문학과 우주론·역학·생리학·수학·광학 등 앞서 역사적인 사례로 지적된 제반 과학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18-19세기를 통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학분야들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에는 대상의 특징에 의해서 학문을 분류하는 방법이 나타났다. 전형적인 것이 W. Wundt의 분류이다.

이처럼 분화된 과정을 거친 개별학문은 18세기 말까지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져있던 전통적인 유럽의 대학구조의 내부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각기 그에 속하는 분과학문들을 탄생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지적인 중심지로 명맥을 이어가던 대학들은 여전히 중세의 전통에 빠져 주로 신학·철학·법학·의학 등과 같은 네 개의 전통학부(faculty)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초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 활동과 과학적 연구 활동이 대학에

바탕을 두기 시작했다. 이즈음에 새로운 강좌들이 주로 철학부와 법학부에 두드러지게 생겨났다. 이 강좌들은 새로운 명칭들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몇몇은 오늘날의 '학과(department)'라고 하는 것의 시초가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학문의 분화는 미국의 지방분권적인 대학제도하에서 더욱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사회과학은 미국의 독특한 지적 분위기에서 유래없는 분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학문분류법의 두 가지 특정한 유형은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으로 구별되어진다. 철학적 분류법은 철학자가 무한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구를 구성짓는 평면도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평면도로 통하여 자신의 근거의 개념과 논리영역에 대한 의미들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 철학 분류법은 우주에 그들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려는 철학자들에 의해 구성된 넓은 의미의 이론적 계층에서 발견 된다.

반면에 과학적인 분류는 관계된 물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실제 관계에 관해 의거하는 상호간에 배타적이고 철저한 범주의 계획을 공식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과 존재는 대부분 식물학과 동물학의 계층에서 정교하게 나타나고 물질, 생물, 그리고 다른 물리적 물체에 대해서 제한 한다. 과학적 분류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것의 주제에서 존재한다고 알려진 관계들을 반영한다.

학문의 분류방식에 어떤 통일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학문의 발전적 전개에 따라 양상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고, 학문 구분법은 그 변화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

문을 분류할 때 그 분류기준을 1) 사용되는 개념의 성질(친밀성, 일반성, 추상성), 2) 논리적 구조(그 영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나 명제가 관련되는 양식), 3) 사용되는 진리 기준, 4) 지식을 탐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등을 드는 것이 통례이다.

3. 지식분류와 문헌분류간의 상보성

본 장에서는 먼저 지식분류와 문헌분류간의 상보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들 양자간의 차이점의 여부를 놓고 학자간의 이견이 분분한데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분류법의 편성은 주류를 설정하는 데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류설정의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1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와의 상보성 원리

일반적으로 학문분류는 지식의 조직체를 학문의 연구과정에서 얻은 개념과 사상의 다양한 분석으로 특성에 따라 나누고 종합 배열하여 체계화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학문분류의 역사는 인간사유의 조직화를 시도하려는 역사로 수 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의 분류 즉, 지식의 분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철학자들의 분류에 대한 접근 방법은 상호관련성 정도에 따라 학문을 분류하고 유용한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학문분류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학문분류법의 두 가지 특정한 유형은 철학적

인 것과 과학적인 것으로 구별되어진다. 철학적 분류법은 철학자가 무한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구를 구성짓는 평면도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평면도를 통하여 자신의 근거의 개념과 논리영역에 대한 의미들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 철학 분류법은 우주에 그들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려는 철학자들에게 의해 구성된 넓은 의미의 이론적 계층에서 발견 된다.

반면에 과학적인 분류는 관계된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실제 관계에 관해 의거하는 상호간에 배타적이고 철저한 범주의 계획을 공식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과 존재는 대부분 식물학과 동물학의 계층에서 정교하게 나타나고 물질, 생물, 그리고 다른 물리적 물체에 대해서 제한 한다. 과학적 분류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것의 주제에서 존재한다고 알려진 관계들을 반영한다.

학문의 분류방식에 어떤 통일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학문의 발전적 전개에 따라 양상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고, 학문 구분법은 그 변화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을 분류할 때 그 분류기준을 1) 사용되는 개념의 성질(친밀성, 일반성, 추상성), 2) 논리적 구조(그 영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나 명제가 관련되는 양식), 3) 사용되는 진리 기준, 4) 지식을 탐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등을 드는 것이 통례이다.

학문분류는 분류의 대상이 학문 자체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강하고 학문의 논리성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헌분류는 구체적인 대상물이 있고 특정 원리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문헌분류표가 많

이 나와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수많은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수 없다. 물론 도서관에서 하는 문헌분류가 학문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것입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학문분류표를 제대로 설정해야만 문헌분류표 또한 제대로 구성되어 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료조직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상보성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식분류는 철학자들이 제시한 분류표로 사색적이고 이론적 고찰에 기초를 두고 이데아를 군집화 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데아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데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데아의 체계를 연구하는데 노력하였다(Dutta 1978, 39) 이들이 낳은 지식분류법은 주로 철학자들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였을 뿐,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정리에 도움이 되는 체계로 하기 위한 응용적 관점은 없었다.

반면에 문헌분류는 유용한 우선순위의 체계로 서가에 문헌을 배열하기 위해서 고안된 분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서관분류표들이다. 문헌분류는 문헌을 가장 유용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식분류에 기초하고 있다.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는 분류하는 원인과 목적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의 최종목적은 지식의 증진과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식분류와 문헌분류 사이에는 상보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점도 있다고 여러 분류학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목적면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두 분류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

점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3.1.1 지식분류는 문헌분류이다라는 논리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군으로는 A. K. Ohdedar & B. Sengupta, Bohdan S. Wynar, J. Mills, H. E. Bliss 등이다. Ohdedar & Sengupta는 철학적 또는 과학적 지식분류는 지식 그 자체를 배열하는 반면에 문헌분류는 문헌에 기록된 대로 표현된 지식을 배열한 것이며, 또한 지식분류는 이데아를 배열하는데 추상적인 반면에 문헌분류는 구체적이고, 그들의 기록된 표현에 있어서 이데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식분류는 개인연구나 최신이론에 의존하는 알려진 아이디어를 기초하며 문헌분류는 문헌의 사상내용, 또는 주제내용을 배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위해서 검색할 때 그들을 배치할 목적으로 실제 자료들을 함께 모으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차이점은 그들 각각의 목적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이 문헌에 표현된 방식에는 일정하게 '지식의 구조'를 반영한다. 인간이 지식의 유형을 아는 것과 그들을 기록하는 양자 사이에 모순은 없으며 이 양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식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Ohdedar & Sengupta 1977, 30-31).

Wynar는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과정은 중요한 상호작용을 한다. 구조적으로 이러한 이데아들이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지라도, 문헌 그 자체에 기초한 우수한 실용적인 분류와 어떤 이데아의 표현인 문헌의 지적개념을 분리할 수 없다(Wynar 1967, 174)고 주장하였다.

Millis는 문헌분류의 목적을 위해서 지식과 문헌에 기록된 지식을 구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전달의 매체로 인정되어 기록될 때까지는 지식으로 인식될 수 없다. 문헌에 존재하는 지식의 방법 또한 그것을 찾는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식의 구조는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다. 때문에 사서들에게 지식은 문헌에 있는 지식과 사실상 동의어로 취급된다(Mills 1960, 6).

D. J. Foskett은 객관적 실체는 그 자체로 분류될 수 없으며, 객관적 실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전달범위 내에서 표현된 사고, 용어의 상태로 존재한다. 지식의 유형이 자연법칙의 유형에 접근할수록 좀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사용할 것이고 용어는 단순할수록 주관적인 에러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Bliss도 기초과학은 자연법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식의 기본구조는 비교적 영구적이며, 전통적인 학문은 이러한 기본구조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분류도 이러한 구조 위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Bliss는 이것을 '과학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의 합의'라고 하였다. 그래서 Bliss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와 실제적이고 서지적인 분류 간에 어떤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이 양자는 결합시킬 수 있으며, 양자의 목적을 혼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일치를 따르는 분류를 한다는 것은 분류를 더욱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Bliss 1939, 36-37).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처럼 다만 그 과정과 방법론에서만 차이점을 지닐 뿐이지, 양자간의 상보성은 지식의 발전이라는 최종 목적에서는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3.1.2 지식분류는 문헌분류가 아니라는 논리

반면에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는 W. C. B. Sayers와 K. Kumar가 대표적이다. Sayers는 도서관의 분류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서가상에 있어서의 자료의 편의성과 목록이나 서지에 있어서의 문헌자료의 배열이다. 그러므로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는 목적이 각각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ayers 1926, 87). 이러한 면에서 Kumar는 다음과 같이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차이점을 13가지 측면에서 상세하게 비교분석하였다(Kumar 1981, 435-437).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문헌분류법만의 특성은 총류, 공통구분, 형식류, 기호법, 조기성 그리고 색인 등으로 지식분류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도서의 주제를 결정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정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정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의 숫자나 세세한 정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차원적인 주제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문헌분류법은 자유 패킷 분석합성식 모델 위에 형성되어져 왔다.

한편 동양의 학자들도 상기와 유사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岩淵泰朗은 지식분류와 자료분류간의 상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론화시키고 있다(岩淵泰朗 1998, 211-212).

자료분류는 자료 그 자체의 내용이 지식·학술의 성과집적, 또한 자료이용의 목적에 주요 부분이 학술·문예의 연구, 조사에 있다고 하면, 자료가 취급하고 있는 주제에 의해 구별

하는 자료분류법의 체계는 지식분류에 준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지식분류는 구분원리를 근거로 한 개념구성의 체계화만이 목적이지만, 자료분류는 어디까지나 자료의 효과적 이용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자료분류는 그 실용적 목적에 따르기 위해 지식분류를 기초로 한 주제 이외의 보조적 양식분류와 주제를 표현하는 기호와 색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식분류는 과학의 진보,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재구성되어 오지만, 자료분류도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끊임없는 개정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되어버린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분류에 대한 순응성, 둘째, 주제분야는 모든 항목을 갖추는 것(포괄성)과 새로운 주제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것(수용성), 셋째, 구분원리를 지킬 것, 넷째, 분류항목의 언어는 명확하여야 하며, 혼동되기 쉬운 용어는 그 의미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료분류를 위해서는 형식분류나 기호, 색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분류표의 설명과 사용법은 가능한 한 상세하여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곱째, 영속적인 기관에 의해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지식분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정을 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문헌분류법의 기본적 조건에 대해서 岩淵泰朗의 자료분류법의 기본조건(岩淵泰朗 1997, 211-212)과 渡邊正亥의 문헌분류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渡邊正亥 1984, 22).

결론적으로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지식분류법 대 문헌분류법의 상보성

지식분류법	문헌분류법
1) 철학자들은 이데아의 상호관계 및 배열 순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어 왔다. 이것이 지식분류법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	1) 사서들은 개념들간의 상호 관계 및 그 배열순서 연구에 관심을 둔다. 이것이 문헌분류법 형성으로 유도하였다.
2) 지식분류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나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2) 문헌분류법은 도서관 소장자료가이용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색되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연속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만들어 왔다.
3) 철학자들은 주로 분류의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관심을 둔다.	3) 사서들은 도서관/정보 센터/다큐멘테이션 센터의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분류에 관심이 있다.
4) 철학자들은 충분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4) 지식의 팽창으로 인해, 점점 더 세세한 정도까지 주제를 세구분해 오고 있다. 오늘날의 분류법은 각 주요 주제의 세밀한 세구분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 관계의 기반 위에 유용한 연속 순서로 배열된다.
5) 철학자들은 세밀한 수준까지 주제를 세구분해서 유용하게 배열하고 그러한 배열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각 주제를, 중요한 것이든 미미한 것이든, 지금은 "분류기호"라고 흔히 부르는 서수 시스템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 역시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5) 각 주제는 관계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분류기호를 부여받는다. 이는 도서관 분류기호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이 지식 분류와 도서관 분류를 명확하게 구별짓는 요구 사항이다.
6) 도서 기호와 일련번호가 제시되지 않는다.	6) 각 문헌을 개별화하기 위해서는 도서 기호를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연속되지 못하면 일련번호가 별도의 요소로 제시되어야 한다.
7) 배열과 연쇄 구조에 무제한의 수용성이 허용된다. 연쇄 구조도 그렇고 배열 역시 삽입이나 외삽의 문제는 없다.	7) 기호법의 제한으로 인해, 연쇄 구조와 배열에서의 포용성이 문헌 분류의 대부분의 표에서 제한되어진다. 그렇지만 기호법의 기술이 발전되어, 엄청난 양의 수용성을 획득하게 된다. 콜론분류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8) 총류가 필요 없다.	8) 총류를 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어느 한 가지 주제로 제한되지 않고 여러 주제를 다루거나 모든 주제를 다루는 문헌을 수용한다.
9) 형식류가 필요 없다	9) 시, 희곡, 소설, 수필, 서간 등과 같은 문학 양식이나 표현 형식에 주관심을 두고 있는 문헌들을 위해 형식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주제는 무시되어야 한다.
10) 공통 구분표가 필요치 않다.	10) 사전, 연속간행물, 백과사전, 연감, 출판목록 등과 같은 공통 구분표에 의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시대 및 지리 구분을 위한 표도 있어야만 한다.
11) 색인이 필요 없다.	11) 문헌분류법에서는 필히 색인이 있어야 한다.
12) 철학자들은 정교한 분류 이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2) 분류될 주제의 내포가 늘어남에 따라 주제 세계를 다루기 위한 원칙들의 수 역시 늘어난다. 성장하는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과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분류 이론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역동적이어야만 한다. 이 이론은 분류자뿐만 아니라 분류학자에 게도 유용한 것이다.
13) 지식분류법은 문헌분류법 어떤 영향도 받은 적이 없다.	13) 지식분류법은 사서들이 폭 넓은 주제들을 연속선상에 유용하게 배열시키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유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식분류는 충분한 정도의 세부 사항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사서들도 이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 2〉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비교

지식분류	문헌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아의 상호관계에 관심 · 철학자들의 지적 만족을 위함 · 지식 그 자체를 분류 · 지식 그 자체를 배열 · 추상적, 이론적 · 분류번호를 제공하지 않음 · 기호가 없어서 지식에 대한 무한한 수용성이 가능 · 학문을 위한 지식구조에 기반 · 문헌분류의 영향을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화된 개념의 상호관계에 관심 ·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함 · 주제와 내용에 따라 문헌을 분류 · 유용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목적 · 구체적, 실제적, 실용적 · 분류번호 제공 · 기호의 제한 때문에 주제에 대한 수용성이 제한적 · 전통적 지식의 구조에 기초 · 지식분류에 영향을 받음
<p>· 궁극적으로 최종목적은 지식의 증진과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일</p>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Richardson과 Bliss가 주장한 ‘지식기반 문헌분류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문분류의 범주에서도 궤를 달리 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는 차이는 있지만 지식의 증진과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최종목적은 동일하고 문헌분류표는 지식분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식분류의 과정론과 목적론으로 구별지을 수 있을 것이다.

3.2 주류설정의 논리성 대 실용성 이론

3.2.1 십진분류법에서의 주류설정

십진식분류법 특히 DDC는 학문의 주제연관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정적인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계층적 분류법이다. 계위력을 지녔지만 총체적인 배열은 반드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Dewey 자신도 자신은 ‘실용주의자’라고 천명하였으며, 또한 1판의 서문에 ‘철학적 이론 및 정확성은 실제적 유용성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과학지식에 대

해 새로 수용되어진 관념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적(pragmatic)’ 지식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효용’이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의미, 그리고 절대적, 원칙적으로 확실한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주류설정에 있어서 논리성 대 실용성 측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문헌에 기록된 대로 모든 지식을 만족하게 할 만한 분류의 불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시도하는 일은 꿈이다. 이론적 조화 및 정확성, 도서관의 실제적 요구도는 대학에서의 각 학문분야의 편의성에 계속적으로 희생당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분류표에서 많은 소주제들은 정확한 위치에 속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곳에 위치하게 된다(Dewey 1876, 4)라고 주제구분의 실용성이 이론을 극복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꼭 9개의 표목으로 모든 주제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적으로는 부가적인 숫자의 사용없이 가능한 상세하게 분류하

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분류법이 적은 숫자로 손쉽게 9개의 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십진식 원리가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원리는 부분적인 곳에서는 독특한 협력을 파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인 만족감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분류번호는 동일적으로 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최상의 것으로 보인다(Dewey 1971, 75).” 이러한 이론은 Cutter도 동의하고 있다. “지나치게 상세하면 구분이 과다하여 자료검색에 불편하므로 ‘상세히 상세히 하여 지나치게 상세하지 않도록’(Be minute, be minute, be not too minute)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십진분류법에 의한 10구분의 원칙 그 자체도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Dawe도 언급한 바처럼 자연은 결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10개군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Dawe 1932, 162). 이러한 논리의 비논리성으로 인해 태어난 분류법들이 바로 비 십진분류법(예컨대 LCC, SC, BC, CC)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DDC의 주류배열의 문제점은 첫째, 다른 분류체계에 영향을 준 Brunet은 문학과 어학을 구분하지 않았는데(Harris는 예외), Dewey는 구분을 한 것이고 둘째는 사회과학과 역사를 3과 9로 구분한 점이다. 셋째는 철학으로부터 순수과학을 1과 5로 구분한 것으로 이는 철학적이거나 이론적, 역사적 또는 실제적이지도 못한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보통과학(general science)과 철학과는 구분할 수 없으며, 사회의 철학(philosophy of society)은 사회의 과학(science of society)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지식의 분류체

에도 합치되지 않으며, 문헌분류의 관점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Bliss 1939, 203-204).

분류법에 대한 Dewey의 근본적 입장은 전술한 바처럼 류, 강, 목 등 그들 상호간의 이론적 연대는 창안 당시부터 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결국 이것이 그의 분류법에 대해 가해진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Dewey가 분류법을 창안할 당시의 의도와는 전연 별개로 19세기말부터 문헌분류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제로부터 다른 주제에로의 연속에 이론성을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주류의 순차성에 논리적 배열이 강하게 요구되었던 결과이다.

이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DDC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신학(후에는 종교)이 철학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사회과학과 역사가 그 사이에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타 주제(어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예술, 문학)를 삽입시켜 그 양자를 분리시켜 놓고 게다가 또한 어학과 문학을 분리시켜 놓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며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에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사주제의 분리문제에 대해서 H. H. Grazian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유사주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역으로 분명하게 관련성이 없는 주제가 인접한 곳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서관이라도 기이한 생각을 하여 왔겠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데로 결국은 그 문제를 이제는 질문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문의 오랜 기간을 거쳐 다시금 그것을 문제로 한 계기를 만든 것은 1949년 Leidecker의 W. Harries에 관한 연구에서부터이며, 더욱이 DDC의 주류는 Harries 분류법에서 발전된 것이며, 그 순서를 모방한 것이니 이상 그 다음의 질문은 '무엇 때문에 Harries 분류법에서 그와 같은 순서를 취하였는가' 라는 식으로 소급해서 그 이유를 '추구하여 가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여 온 경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Graziano 1959, 45).

W. C. B. Sayers'도 언급한 바처럼 확실히 DDC에 있어서는 그 주류간에 발전적 순서를 발견하고자 한들 그것은 헛된 일이다(Sayers' 1955, 130).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 주류간의 비논리적 배열이 분류법이 구비해야 할 근본적인 논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Dewey 자신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것은 Harries에 의한 역 베이컨식(Inverted Baconian Order)에 의한 것이 논리적 근거이고, 그 사이에 Dewey 자신에 의한 새로운 논리적 정서(整序)라는 과정이 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만년에 역사와 사회과학, 어학과 문학의 두 범주를 분리시켜 놓은 형식에 대해서 결코 현명한 처사는 아니더라고 회고하고 있다.

1920년(당시 69세)에 그가 어떤 분류법에 대해서도 그것에서 완전성을 요구하는 일의 불가능성을 설명하고 난 후 '어제보다는 오늘'이라는 식으로 보다 훌륭한 분류법을 만들 수 있는 일, 따라서 그의 분류법도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의 무의미함을 강조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만일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변경을 가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의

형식을 언제까지라도 계속해 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그의 이러한 토로는 학문발전의 궤도가 연속성을 지닌 것만은 아니고 생명의 과정을 겪는다고 보고,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와의 상호성 원리도 Bliss가 주장한 지식기반 문헌분류법 또는 '과학과 교육간의 합의'에 대한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역사가 사회과학 다음에 위치하고 어학이 문학 다음에 놓일 수 있게 베이컨식 이론(Baconian order theory)을 버리고 제 4류와 9류와의 위치를 바꾸어 놓을 정도이다(Dewey 1920, 153-54)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회고는 만일 새로이 분류법을 작성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류의 순차를 어학과 역사의 위치를 변경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렇지만 Dewey는 이론이란 부단히 변화해 간다는 입장에서 문헌분류법에 새로운 이론을 추구해 가는 형식에서의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일에는 비판적이고, 뿐만 아니라 Sayers'가 지적한 바처럼 그는 원래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시도해 온 지식분류의 범주에 따른 형식의 분류법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Sayers' 1955, 130). 따라서 이상과 같은 주류위치의 변경이 설사 바람직스럽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것은 곤란하고 개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폐해는 피하여야 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수천의 도서관들이 지금 DDC를 사용하고 있고, DDC 번호는 목록, 색인 및 기타 저작의 수천만 페이지에 인쇄되었다... 사실상 번호는 변경 없이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주류(great class)를 변경시키는 일은 단순하지만, 반면에 주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

되는 수 백 개의 기입을 변경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DDC에 있어서 주류배열의 비논리성이 강하게 비판되어 Dewey 자신도 전술한 바 처럼 만년에 반성의 회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에 그러한 비판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Dewey가 DDC 초판에 도서관장서는 류라고 호칭되는 9개의 특수도서관으로 우선 구분된다. 이들 류들은 철학, 신학 등이며, 9개의 숫자로 번호가 부여된다. 그래서 류 9는 역사도서관, 류 7은 예술도서관, 류 2는 신학도서관을 나타낸다. 이들 특수도서관 또는 류들은 그래서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각각은 기본주제의 9개의 특수한 강으로 다시 구분된다... 그래서 59는 5번째 류인 자연과학의 동물학의 9번째 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은 이들 강이 각각 분리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한 9개의 목(section)으로 구분된다. 주어진 류, 강, 목인 이러한 번호를 분류 또는 분류번호(classification or class number)라고 호칭한다(Dewey 1876, 3)라고 밝히고 있다.

주제를 십진법에 엄격히 맞추었지만 실용성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십진법은 하인(servants)으로서 사용되었지, 주인(masters)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주제는 결합 또는 분리해서 꼭 10개의 표목으로 두었으나, 분류표 작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찰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10개 이상의 표목이 더 자연스럽

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었으니 1개의 숫자를 첨가하는 방법으로서 100구분으로 외연을 넓일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방법을 썼다. 처음에는 1000개의 목밖에 인쇄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도서관에서는 기호의 사용한정이 3개 숫자에 한한 경우에 하는 것처럼 동일 기호 아래 밀접한 유사주제를 함께 놓아야 할 필요가 자주 있었다.

이론적으로 각 주제를 모두 9구분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적으로는 첨가숫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분류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문헌 분류표가 정한 십진법은 희귀할 만큼 용이하게 9구분만을 허락한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는 고유의 동격을 깨뜨리는 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용상에는 전부가 만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9구분 이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가장 밀접한 인연이 있는 주제의 단일 기호에다 모으는 방법에 의해서 또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라서 1에서 8까지의 숫자를 배정하고, 소주제에는 기타(other)로서 9에 모으는 방법에 의해서 그 곤란성은 보통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군의 어느 것이든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주제로 세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무한한 숫자를 전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상의 논리에 의하면 9개의 각 류는 다른 것과 연관성을 갖지 않는 형식으로서의 특수도서관으로 보고 강이나 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DDC의 주류배열상의 비논리성은 당초부터 비판을 받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Sayers'는 Dewey가 자기의 분류법을 9개의 별도의 분류

가 그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Sayers' 1955, 130).

그러나 이러한 주류 배열순에 전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구분원리에 대해 몇몇 학자들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비록 이것이 DDC 창안 당시 Dewey에 의해 구축된 이론이 아니어서 임의적이거나 일부러 Dewey의 이론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구축된 것인지는 몰라도 다음과 같은 이론은 주류순의 비논리성의 비판에 대한 순기능의 이론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즉 총류를 혼돈이라고 한다면, 이 혼돈에서 추출된 최초의 것은 사람다운 특성, 즉 이성, 환연하면 정신(mind)이므로 그는 이 정신을 최초의 류, 즉 철학에 배정하였다. 그 다음은 인간이 추리할 수 있게 되자 그가 사고하는 것은 누가 인간을 창조하였느냐의 문제이다. 이리하여 인간들은 만물 위에 덮인 신적인 위력(divine power)을 생각하고 이것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제2의 위업으로 종교를 삼은 것이다. 다음 인간이 서로 모여서 가족이 되고, 부락이 형성되고, 중국에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활동과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제3의 위업으로 사회학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언어이므로 제4위에 언어학을 두었고, 또한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갖게 되어 필연적으로 과학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어서 생명을 유효하게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유용기술(useful arts)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 이것을 미화하는 것이 예술이고, 최후에

언어를 통해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문학 및 역사이다라는 논리이다(Sayers' 1931, 590-591 : Douglas : 김태울 1960, 58-59).

한편 Harris는 Hegel의 사상을 이론화하고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미국인 학자이다. Harris의 세계관이 Dewey의 분류법에 기본 골격을 제공하였으므로 주류설정의 원리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즉, Harris의 차원에서 주류의 설정과 배정의 원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를 다루는 세 모형이 있다. 의식의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과학적인 것과 무의식의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예술적인 것과,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여 질 수 없으려면 시간과 공간의 연결로부터 귀착되는 그러한 시스템의 역사적인 것이다. 세 가지 유형 내에서 도서의 내용 - 그것의 주제사항 - 은 분류 구조를 결정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전개되어 Hegel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과학은 전개되어 모든 다른 분야와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시스템의 근원이 되는 철학으로 된다. 절대자에 대한 학문이며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신학은 그 다음에 온다.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학에 종속되는 종교는 신학에 포함된다.

인간은 그의 대부분의 정신적인 역할을 사회나 국가 내에서 성취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및 정치학은 논리적으로 그 다음 연구분야에 오기 마련이다. 정치학은 법률학인데 이 분야는 사회가 개인에게 구속을 가하는 것이며, 정치는 법의 구속에 대하여 개인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실제적인 의지의 변형

에의 실례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과학은 경제학(정치경제학), 교육인데 전자는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우위권을 가지며 그의 목적에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인간을 사회의 운용방법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회과학과 정치학의 맨 나중에 위치하는 것이 철학인데 이것은 사실은 자의식이 강한 사고의 결과이며 사회에 대한 그 자체의 가장 좋은 기록이며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연결이다.

자연과학이 그 다음에 오며 이것 다음에는 유용기술(useful arts)이 온다. 전자는 자연의 법칙을 전개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연의 법칙을 사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유용기술과의 과도적인 상태가 의학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과학이며 부분적으로는 기술이다. 이것은 주제가 취급하는 중요유형이 과학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중 마지막이다.

두 번째의 중요한 유형은 예술적인 것이다. 예술은 미술로 전개가 된다. 즉, 건축, 조각, 회화, 판화, 석판인쇄, 사진술, 그림수집, 음악, 그리고 이러한 것들 다음에는 시, 산문, 예술적인 유형의 마지막인 잡문이 온다.

마지막 유형은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는 지리와 여행, 시민역사, 전기와 서신으로 되어있다. 문장학과 계통학도 여기에 속한다. Harris는 몇 개의 등급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저작에 대한 등급에는 목록을 덧붙였다. 이 부록(그가 이렇게 불렀음)안에 Harris는 장서(collection), 사전, 연속간행물과 같은 몇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

는데 이러한 것들은 Dewey의 분류법에서 총류에 속한다. Harris의 세계관으로 분류되는 DDC의 구조가 Harris의 세계관으로 분류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Dewey의 분명한 특이성 - 즉, 사회과학이 역사와는 동떨어져 있고, 언어는 문학과 별개로 다루고 있음 - 에 대한 이유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이론에서도 언어학과 문학의 격리가 비논리적이라는 점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음을 주시할 수 있는데 즉, '언어를 통해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문학 및 역사이다'라는 이론이 그것이다. 그러한 이유로서도 필시 언어학과 문학과를 인접시키지 못한 점이 최대의 단점으로 비판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바로 LCC이다. DDC에서의 논리성과 실용성을 각기 비판하는 일은 이제는 부질없는 '질문의 유희놀이'에 불과하며, 그가 초판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처럼 '논리성은 실용성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도서관의 자료군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남태우 1994, 183-216).

3.2.2 비 십진분류법에서의 주류설정

비 십진분류법에서의 주류설정의 논리는 가장 과학적 분류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CC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54년간의 개정을 거친 CC에서의 주류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쳐왔다. CC의 "주류는 정당한 원리와 일관성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본분류는 대부분이 강에서 논리적이며, 상세성에 있어서 는 과학적이며 또한 정교성에 있어서도 학문적

이다(Bliss 1939, 299).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정교성이 오히려 분류자를 혼동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물론 CC는 특별히 동양 장서에 적용시킨 것이다. 동양정신이 비록 서양정신을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용해시킬 수는 있다.

즉 주류배열의 원리에 대한 CC의 원리는 A. M. Ampere의 학문배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Ampere는 학문을 우주론(science cosmologique)과 정신과학(science noologique)(세계철학대사전 1987, 715)의 둘로 나누었으며, 그의 저서 『과학철학시론: *Essai sur la philosophie des Sciences*』(1834-1843)에서 학문을 물리학, 공학; 지리학, 광업; 식물학, 농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등의 순서로 나누었다. 이러한 체계는 그 이전의 체계보다 더 철저히 분류한 것이었다. 그는 기초과학 다음에 유용기술과 응용과학을 배치하였는데, Ranganathan은 그의 학문배열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Kumar 1979, 365-366). 이것은 같은 수학자인 Ampere의 연속분류(serial classification)방법에 Ranganathan이 동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생물학(G)과 식물학(I) 동물학(K)이 떨어져 있으며, 정치학(W)과 법률(Z)이 떨어져 있어서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류는 최초의 지식의 영역에 관한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분류전문가들에 의해서 몇 개의 주제영역으로 나뉜다. CC1에 의하면 주제영역은 주제구분 또는 주구분(subject divisions or main divisions)이라 하여 26개로 구분해 놓았다(Jyothirmayi 1996, 1). 즉, CC1에서는 주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 주제구분 또는 주구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류라는 용어는 CC2에서부터 소개되어 CC6(1963)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류표에는 기초류(basic class)와 포괄류(generic class)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류는 주류와 규범류를 말한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전체를 몇 개의 구분된 주제 분야를 주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문사회에서 최근에 적용하고 있는 관행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 밖에 주류를 전통적으로 다시 구분한 것을 규범류(canonical class)라고 한다. 이를테면 지질학은 먼저 광물학과 암석학, 층위학, 고생물학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규범류의 구분에는 분명한 구분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단지 같은 계열에 속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Ranganathan 1960). 포괄류는 주류 중에 어떤 것은 몇 개의 하위류를 포함하는 상위류이기도 하고 어떤 류는 한 상위류에 포섭되는 하위류이기도 한 류를 의미한다. 즉, 몇 개의 주류를 포함하는 류이다.

CC7에서는 기본주제(basic subject)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primary basic subject 또는 non-primary basic subject라고 표현되기도 한다(Jyothirmayi 1996, 1). 기본주제라는 용어는 CC6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용어는 CC7부터 새롭게 변경된 용어이고, CC7부터는 분류표에 모든 주제영역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류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주제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주류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CC 주류의 용어

CC 1	CC 2-CC 6	CC 7
Subject Divisions or Main Divisions	Main Class	Basic Subject · primary basic subject · non-primary basic subject

4. 문헌 분류법에서의 주류의 설정 및 원칙

모든 분류법의 총체적인 구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류(main class)이다. 주류는 지식의 영역에 대한 관습적인 구분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게 되며, 분류에 있어서 지식의 최초의 구분은 주류를 창출하는 일이다. 주류가 분류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측면에서 본장에서는 주류의 설정 원칙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4.1 분류법에서 주류의 정의

어느 분류법에서든지 두 가지 관념이 기본이 된다. 즉, 군집화(grouping)와 순차화(ordering)가 그것이다. 군집화는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끼리 모으고, 유사하지 않는 것은 유사하지 않는 것끼리 구분하는 행위로 분류의 기본적인 행위이며, 본질적인 인간 사유이다. 분류의 일차적인 행위는 대상이나 개념을 군집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집화는 본질과 속성에 따라 개념의 유사성에 따라 함께 모으는 것이다.

순차화는 그 다음의 과정으로 군집의 체계를 결정한다. 문헌분류란 연구 결과물인 자료를 도서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일한 주제나 유사한 주제와 형식에 따라 정리, 배열

하는 행위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헌분류표는 예상 가능한 모든 주제를 구조화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개념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군집화는 주류명을 부여하는 단계라면, 순차화는 주류순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주류는 문헌 분류표에서 류(類)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학문에 기초하여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학문의 전문성을 반영해서 주류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주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어떤 분류법이든 분류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학문을 주제별로 주류(main class)를 설정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먼저 주류의 정의를 용어사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는 주류란 “분류상의 main class 즉, 주류는 분류표의 류(類)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DDC에서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언어, 역사 등이다. 이것은 다시 강, 목으로 세분”(사공철 1996, 336)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ALA의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주류는 분류상에서, 분류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본 형태로 주요한 지식 분배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L. M. Harrod는 그의 『Harrod's Librarians Glossary』에서 “주류는 분류표의 주요한 구분이다. 예를

들면, Brown의 주제 분류에서는 물질, 생명, 정신, 기록이 주류에 해당되고, Dewey의 분류에서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등이 해당된다. 이것은 다시 점진적 단계에 의해서 강과 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S. Keenan의 『*Concise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주류는 일반적인 분류표에서, 모든 주제의 범위를 포함하고 그 각각의 다른 주제들은 대등하게 지식의 범위로 분리된 것"(Keenan & Johnston 2000, 16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주류는 '모든 주제의 범위를 포함하고 그 각각의 다른 주제들은 대등하게 지식의 범위로 분리된 것'으로 학문세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지식전체를 몇 개의 일정한 주제 분야로 대등하게 구분하여 놓은 것을 의미한다. 분류표들은 주제구분 및 설정에 있어 당시 학문의 성격과 발전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욕구 등 시대별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문의 세분된 내용에 따라 주류를 구분하는데 이는 다수의 주류로 구성된 분류표가 모든 지식구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요약컨대 분류에서 지식의 최초의 구분은 주류를 창출하는 일이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학문분류와 등가이다. 그러나 주류의 완전한 순차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류를 구성하는 일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4.2 주류 설정의 규칙

근대 이후의 대다수 분류표들은 주류배열에

있어 신학을 상위의 주류로 설정하고 법학을 신학 다음으로 인접하게 배열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만물의 정점으로 사람은 우선 창조자인 신을 우러러보고 있으므로 신학을 모든 주류 가운데 우선 설정하고, 신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직면하므로 법률 및 의무, 정의 및 부정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하여 이어서 법학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과학 및 예술, 문학, 역사 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분류표는 Bliss의 BC가 종교·신학류(P) 다음에 법학(S)을, 그리고 Brown의 SC가 신학·종교(J) 다음에 법학(L)을 두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류구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문헌 및 필사 등과 같이 특정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학문을 포괄하고 있는 주류를 총류라 하여 분류표의 맨 앞에 위치하게 한다. 근대의 분류표들은 총류를 분류표의 마지막에 두었지만, 현재의 대부분의 분류표들은 이 총류를 맨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주류는 현행의 모든 일반분류표의 총체적인 근거가 되는데, 십진식분류표에서 주류는 1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능력이 적고, 지식을 10개의 주류 안에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인위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기 힘들고, 지식의 확장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이 발생해도 그 영역을 주류로 배정하기 힘들어 관련 주류에 흡수되므로 주제배열에 비논리적인 곳이 많고 주류와 하위류의 배치 및 상하계층관계가 불균형하다. 그러나 비십진식분류표는 각 분류표마다 다양하게 주류가 구성되어 있어 자관에 맞는 분류표를 알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주류의 수

도 한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삽입이 용이하고, 확장된 학문영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류로 배정할 수 있으므로 분류표가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19세기 분류학자들은 학문을 구분할 때에 개인적인 주관, 지적인 것, 관념주의자의 구별을 지지했다. 비록 주관적이지만 관념주의자적 인식이 19세기 분류법을 좌우했고, 학문이 주류의 균등한 블록으로 벌써 나뉘었다는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았던 객관적이고 유물론적인 분석의 발생 흔적을 더듬을 수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군집화 현상들을 정의하는 것과 분할의 고유한 특징을 설정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명확한 주제의 순위를 잡는데 분명한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물질주의자들은 학문의 그 이상의 분할에 대한 원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서의 주관적인 분류학자들보다 더 멀리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들은 물질 구조의 수준과 에너지의 형태와 거기에 근거를 둔 '변화'의 형태로서 각 주류 내용을 열거하는 초기의 분할을 제창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 자체의 변화를 구분하지는 못했다.

20세기 분류법의 특징은 경험주의이다. 그래서 이론은 무시되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분류법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원칙으로 하고 적합한 철학적인 시스템에 의거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전통 분류학자들은 분류법에서 주류의 규칙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Sayers는 "...당장 주류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편의를 위해, 우리는 여전히 이 조항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십진분류법은 단지 9개의 주류들이 설정

되어 있는데 총류를 위해 하나를 더한 것은 약간 과도한 것이다. 이는 십진분류법의 특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착각"이라고 말했다(Maltby 1978, 580) 또한 Mills 또한 "주류는 아주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 특히 그것은 할당되고 사용되는 기호법적 기반으로 할당되고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반영된 어떤 특별한 표의 소위 주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각 주제필드의 명백한 정의는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Mills 1962, 33). 일반적으로 주류순차가 일반 분류법의 성공에 매우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동안에도 일부 주류순차가 보다 만족스럽고 다른 것 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4.3 주류의 순차

분류표 편성자의 계획은 분류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의해 조정된다. 분류표 편성자가 지식계의 모든 것을 포함시키려고 고려한다면, 첫 단계로 지식의 주요 분과(주류)라고 생각한 것을 면밀히 계획해야 한다. 분과를 결정했다면, 각각의 분과에 명칭 또는 분류용어를 부여하여야 한다. Francis Bacon은 세 가지 주류 즉, 기억(Memory), 상상(Imagination), 그리고 이성(Reason)으로 지식계를 나누었다. 이러한 주류설정은 인간 정신능력의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신능력에 대해서 분류 편성자는 사학, 시학, 철학이라는 용어를 적용했다. Bacon은 사학이나 시학이나 철학이 아닌 지식이 있다고 믿었다. 논리학자에 의하면 이 용어들은 큰 외연들이다. 이 세 용어가 지식계의 모든 관점을 구성하는 거대한 범위라는 것

을 의미한다.

Bacon에 신세를 진 분류가들은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었던 전통 연구분야를 그들 분류법의 '재료'로 삼았다. 이들 분야는 이미 대부분은 18세기의 초반에 대략적으로 명칭이 정해졌었다. 분류가들의 목표는 학문의 합리적인 집산화 및 배치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분류법 구성의 출발점은 어떤 주류내에서 구분되는 '지식계(universe knowledge)'이다. 각 주류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논리적 구분이 세분 또는 군집화 내에서 주류의 논리적 구분을 위해서는 특성이 내제된다. 이렇게 유도된 군집화는 그 다음 유용한 순서로 정리된다. 각각의 군집화는 그 자체로 다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특성의 열에 의한 연쇄적인 구분은 분류열로 나타나고, 잘 알려져 있는 학문의 구조에 의해 개략적으로 다시 표현됐다.

Cutter, Brown, Dewey와 기타 분류학자들이 시도했던 그들 저마다의 문헌분류표의 주류들을 선정했던 규칙의 원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Richardson이 주장한대로 만약 모든 지식을 완전한 이데아의 분류형식으로 인정된 구분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이 체계는 문헌분류법의 기초로서 사용될 것이다. Richardson은 과학의 순수 순서와 우수한 문헌분류법은 자연대로 식별 할 순서로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ichardson에 의해 직면하게 되는 '자연순(order of nature)'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의 순이다(Richardson 1964, 9-20). Cutter도 발전과 진보의 진화순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전통적인 분류가들은 그들의 주류순 이면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Ranganathan에 의해 정의된 주류는 "지식의 영역 중에서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히 총망라한 분류의 첫 번째 배열순을 형성하는 지식계의 공정한 동종의 영역"(Dutta 1978, 46)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어는 류, 강, 목 그리고 세목에 붙여주는 명칭이다. 용어는 분류표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명을 의미한다. Sayers는 "용어는 목적을 위해 최선의 것이어야 하며, 그들은 단어나 구가 명명된 주제의 전체인 것처럼 완벽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들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정의되어야 한다."(Sayers 1954, 24)고 언급하였다. 사용된 용어는 명료해야 한다. 환언하면 용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만을 허용해야 한다. 용어는 또한 전체 분류표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모든 분류표는 주류체계나 분류용어를 취하거나 특수 분류표에서처럼 그들 각각을 구분하기도 한다. LCC에서처럼 공통 구분표를 취하지 않고 각 류별로 별도로 출판된 예도 볼 수 있다. 십진분류법에서 Dewey는 지식의 영역으로 시작하고, 제1차적으로 주류를 설정하였다. Ranganathan에 의하면 주류는 분류표의 첫 번째 배열이다. Sayers는 "배열에서 이들 용어는 지식의 큰 영역을 만들지만, 지식 그 자체보다 더 작은 외연과 더 큰 내포를 만든다고 하였다(Dutta 1978, 46) 각각은 다른 용어에 의해 망라된 모든 것을 제외한다. 그들은 상호 배타적이다. 그들은 함께 지식의 전체를 구성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식의 일반적인 영역에서, 지식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주제는 겹쳐지고 상호간 융합된다. J. Mills는 "적어도 주위의 혹은 2차적인 주제의 일부부분

을 알지 못하면 주제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Mills 1960, 31).

일반 분류표에서 주류의 수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렇지만 특수 분류표에서는 거의 제한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Vickery는 “지난세기 동안 또는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분류는 제한된 주류의 수로 지식계를 나눔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엄격성과 전통적이고 이질적이고 또한 중복적 학문분과 주류수의 사용은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좀 더 동질의 ‘주제영역’으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초는 필요하다”라고 하였다(Dutta 1978, 47). 즉, 주류의 설정을 인위적인 배열보다 자연순을 선호하고 있다.

시도도 없이 주류의 선택과 체계를 위해 이론적 합리화를 반영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1876년(DDC 초판 발행년)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Dewey는 십진분류법의 주요 개요를 Bacon의 세 개의 주요 원천(기억, 상상 그리고 이성)의 정반대 개념에 근거를 두었다. Brown의 주제 분류법에서 류 순서는 물질(matter), 생명(life), 정신(mind) 그리고 기록(record)이었다. 한편 Bliss는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일치성에 적용시켰다. 그는 지식의 영역은 완비된 구상으로 나누어질 수 없고, 서지분류에서 ‘대안적인 위치 선정’의 광범위한 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 규정 때문에, 주어진 주제는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선호도에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분류의 어떠한 곳에 배치될 수 있다. BC의 주류 순서에 대해 Foskett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Bliss는 ... 학문 분류사의 포괄적인 개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BC의 주류 순서는 다른 일반 분류표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큰 진보이다.”라고 하였다(Foskett 1963,

130). 이것은 Bliss가 주제의 종속과 병렬 그리고 ‘특성의 단계적 변화’의 관찰에 유의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역사적 개관은 문헌분류가 당대의 과학적 생각에 뒤떨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주류순의 문제에서 많은 것이 그 후에 쓰여졌다. 진화론이 생물학 영역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둔 결과로, 문헌분류를 위한 진정한 ‘자연의 순서’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물론 주류 순서가 일반분류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어떤 주류 순서가 다른 것에 비해 훨씬 좋고 또한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현대 분류이론은 주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왔다. Sayers는 “... 편의상, 가끔 우리가 이 용어를 여전히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류 그 자체는 정의내리기에 쉽지 않음을 이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십진분류는 단지 9개 주류에 총류 1개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십진 기호법의 본질에 의해 만들어진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Palmer는 많은 분류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히 중요한 존재로서 간주될 수 있는 9개 가지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여주었다(Syers’ 1967, 59).”

Bliss는 “주류는 관련 있는 주제가 가장 가깝게 있도록 주의깊게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문학과 언어는 가깝게 있어야 하고, 통상과 경제학, 심리학과 의학, 등등도 마찬가지다. 몇몇 경우에서 양자택일 위치는 특별한 필요를 위한 요구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양자택일 위치)은 분류표에서 확실한 주제를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규정을 수반한다. 교육

적이고 과학적인 합의에 관한 Bliss의 생각 또한 중요하다. 그는 “분류를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합의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헌분류가 대다수 독자의 인정된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필수적 사실이다. Vickery는 “분류가 알려진 자연의 순서에 밀접하게 반영할수록 분류는 실용적이다 라는 Bliss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Foskett 1963, 131)라고 강조하고 있다.

CRG의 분류표 작업에 참여했던 Derek Austin은 주류의 순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에서 지식이 방수구역(watertight compartment)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흔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조직의 실제적 관점에서 볼 때 주류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점을 주류는 제공하고 있다(Austin 1972).

만일 Austin의 이 말에 동의한다면, 주류에 근거를 둔 총체적인 구조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가 분류표의 효율성에 대하여 대단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는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류 안에서의 순서와 병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엔진의 조정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는 이용자는 Technology 안에서의 유용한 순서를 필요

로 한 것이지만, 이 류와 다른 류사이의 순서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앞의 류가 DC에서와 마찬가지로, Science가 아니라, LC에서와 마찬가지로, Agriculture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탐색은 도움이나 방해가 받지 않는다. Ranganathan에 따르면 ‘분류표의 계획에 있어서 주류의 순서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Ranganathan 1937).’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견딜 수 있는’ 주류의 순서를 편성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관련된 주류는 병치되어야 하며, 다른 주류에 좌우되거나, 다른 주류로부터 또는 다른 주류보다 더 나중에 개발된 주류는 그 주류의 다음에 오도록 해야 한다(Buchanan 1973 111).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동시에 연구되는 경향이 있는 류들이 함께 유지되는 경우(DC의 주류의 순서와 병치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다른 분류표 -UDC조차도- 에는 병치되어 있는 Language와 Literature를 분리하는 것이다), 더 큰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류들이 함께 유지되는 경우(LC에서의 Social sciences, Politics, Laws, Education의 병치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응용분야가 근거를 두고 있는 과학과 함께 유지되는 경우(BC에서 Chemical technology와 Chemistry를 병치하고, CC에서 Agriculture와 Botany를 함께 유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에는 언제나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문학은 예술이며, 더 큰 총체의 일부로서 다른 예

술과 함께 병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과 함께 연구되는 어학이 동일한 더 큰 총체의 일부란 말인가? 이러한 불일치의 좋은 예를 CC에서 볼 수 있다. I 식물학, J 농업, K 동물학, KZ 축산학 등의 순차가 그것이다.

이것은 응용분야와 과학을 함께 배치하는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동시에 연구되는 두개의 주류(Agriculture와 Animal husbandry)와 더 큰 총체를 구성하는 두개의 주류(Biology의 두개의 분과인 Zoology와 Botany)를 분리시키고 있다. 응용분야를 그 분야의 과학과 함께 오도록 하는 것은 또한 주의 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이를 실행할 경우 불편한 병치의 원인이 되기로 한다. SC에서는 펜싱과 공술에 관한 저작을 다른 스포츠와 함께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Military science (물론 이들은 이로부터 유래되었다)와 함께 오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일이 분류에 있어서는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정에 의하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그리고 우리 이용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사실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세트이다. 즉 주류 사이의 순서는 진화적 순서를 따르거나, 또는 어떤 주류의 다른 주류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에 대한 좋은 예는 SC에서 볼 수 있다. SC의 주류는 편찬자에 따라서 Matter-Force-Life-Mind-Record의 진화적 순서(예를 들면 Physical science-Biology-Philosophy-Literature)를 반영하게 된다. 의존성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Bliss의 BC의 순서이다. 이는 그

가 특수화의 점진성(gradation in speciality)이라고 부르는 것(Bliss 1939)으로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다른 어떤 학문의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학문은 그 학문의 다음에 와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천문학자는 Chemistry와 Physics의 기법과 도구-광학, 분광학 등을 사용하므로 Astronomy는 이 두 류의 다음에 배열해야 할 것이며, 화학자는 Physics의 기법을 사용하므로 Chemistry는 Physics의 다음에 오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물리학자는 Mathematics를 이용하므로 이 두 류의 배열순서는 Mathematics-Physics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근거한 BC는 현행 분류표의 주류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순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Buchanan 1979, 113).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CRG의 분류표는 지식의 전 분야에 facet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임의적이고 고정적인 주류의 문제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관습적 분류표에 있어서의 주류의 순서에 상응하는 총체적 순서, 즉 실제의 순서를 필요로 하였다. D. J. Foskett(Foskett 1961)는 생화학자인 Joseph Needham이 처음으로 시작한 통합적 수준의 이론(theory of integrative levels)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통합적 수준은 진화론적 아이디어이다. 이것은 성질의 추가에 의하여 생겨나게 되는 실제의 복잡성 증가를 근거로 한 절대적인 실제의 순서를 만들어 내게 된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옮겨가는 어떤 진보단계에서 추가의 성질에 의하여 새로운 조직의 수준이 생겨나게 된다. 실제의 순서를 결정하고, 분류표에서 그 순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의 수준

의 원칙인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Palmer는 이 이론은 다만 주류에 관련된 문제를 분류표의 편차자가 아니라 색인작성자에 의하여 다루어지도록 후퇴시켰을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사물 사이의 순서에 대한 훌륭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분류표에 대하여 더욱 훌륭한 포괄적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인지는 의무이다. 이를 옹호하는 주장의 하나는 그 결과로 생겨나는 총체적 순서가 일반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BC에서의 순서와 오히려 유사하다는 것이다(Mills는 이를 BC 2의 각권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Mills 1960)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liss의 순서는 문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통합적 수준의 순서는 그러한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절대적 순서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는 인간의 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더 '과학적인' 순서보다도 인간의 인식에 적합한 순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4 주제설정의 문제점

학문적 주류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유용하도록 집단화하게 되지만, 또한 색인 작성자와 이용자에게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 분명한 문제점은 어떤 실재를 모든 측면(aspect)에서 다루는 저작, 예를 들면 화기의 기술, 장식, 풍속, 이용, 보존, 수집을 포함하고 있는 화기에 관한 책—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측면적 분류표의 편찬자나 이를 사용하는 색인 작성자는 세 가지의 해결책을 이

용할 수 있다(Buchanan 1979, 105-117).

첫 번째 해결책은 그와 같은 일반 저작을 그 실재를 포함하고 있는 분류표의 첫 번째의 학문적 류에 배치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UDC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기에 관한 일반저작은 Military Science에 배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저작을 '독특하게 정의하는 류'(Farradane 1966), 즉 실재에 관한 필수적 정의만을 제공하는 학문에 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Horse라는 실재에 대하여 '독특하게 정의하는 류'는 Zoology가 될 것이다. 말을 전쟁에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Military Science는 아니며, 말을 recreation에 이용하기는 하지만 Recreation이 아니며, Transport나 Farming, Catering등의 류가 말의 여러 측면에 관한 저작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류는 아니다.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일반 저작을 위하여 분류표의 첫머리에 어떤 류를 유보해 두는 것이다. BC 2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분류표이며, 이 류는 'Phenomena'로 표시되어 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학문적 주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식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 반하여, 학문적 주류는 일반 분류표에서 발견되는 지식의 구조에 대하여 Bernard Palmer가 '대단한 고정화의 효과'(Palmer 1962)라고 한 효과를 갖는다.

지식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로 다른 지식분야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며, 서로 다른 학문의 상관적 중요성이 바뀌어가는 데 반하여, 측면적 분류표는 주류의 구조가 부과한 구속반(strait jacket: 미치광이나 죄수에게 입혀 두 손을 못 쓰게 하는 옷)의 속박으

로 인하여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 학문을 근거로 하는 분류표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우며, 서로 다른 학문에 대한 중요도의 증가나 퇴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호의 배정을 변경하기가 어렵고, 학문적 구조안에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삽입시키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예는 'Other branches of engineering'으로 표시되어 있는 DC의 629류가 Aircraft engineering, Motor vehicle engineering, Astronautics뿐만 아니라 Automatic control engineering까지도 수용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기호적인 것일 뿐이며, 신판에서의 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분류표의 기본구조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개정이 수반하게 될 장서의 분류로 인하여 사서(그리고 이용자)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경에 대한 소극성이 앞의 629의 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류의 순서는 앞의 순서와 동일하다. 즉 Astronautics 류는 Motor vehicle engineering에 의하여 관련된 류인 Aircraft engineering과 분리된다. 분류표의 편찬자가 Astronautics와 Aircraft engineering을 병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소한 변경조차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조에 있어서의 더 철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4.5 학문적 주류에 대한 대안

학문적 주류에 대한 대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문적 주류는 지식의 구조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타당성을 유지해 주게 될 절대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문적 주류가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것은 어떤 분류표는 10개의 주류를 갖고 있으나(예를 들면 DC, UDC), 어떤 분류표는 20개도 넘는 주류를 갖고 있다(예를 들면 LC와 BC)는 사실과, CC에서의 Agriculture가 주류이지만, DC에서는 Technology라는 주류의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BC에서는 Social welfare가 주류이지만, DC와 LC에서는 Social science의 일부라는 사실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일반분류표의 근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주류를 포기하거나, 주류의 사용을 동시에 포기해야 한다(Buchanan 1979, 105-117).

전통적 주류에 대한 첫 번째의 대안은 측면에 의하기 보다는 실재에 의하여 병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기에 관한 모든 저작을 함께 배치하고, 수집, 군사학, 풍속, engineering에 관한 저작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표를 J. D. Brown의 용어에 따라 '구체적 분류표(concrete scheme)'라 하는데, 그의 SC가 그 예가 된다. Brown은 실재를 구체적인 것이라 하고, '...구체적 주제는 더 일반적 관점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Brown 1939)고 말하고 있다. 그가 이를 우선 선택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 - '더 일반적 관점'-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이용자가 항상 특정의 실재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수집에 관한 저작을 찾고 있는 사람이 화기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체적인 것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을 경우, 이용자가 다른 구체적인 것에 관한 저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기에 관한 저작을 찾을 경우 이용자가 시계에 관한 저작이나 탄도탄 미사일에 관한 저작, 또는 군사용 식료품의 공급에 관한 저작을 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Brown은 구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인 것이지만, 측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Brown 1939).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에 의한 병치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과, 만일 우리의 구조를 학문적 주류에 근거를 두게 되면,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재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조사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즉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병치하게 되면 학문에 의하여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공준화 된' 주류 안에서 보다는 지식의 영역에 대하여 facet 분석기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Foskett 1970), 즉 분류표의 근거로서 일련의 포괄적인 facet- 모든 조작을 포함하는 Operations facet,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Materials facet 등 로 이루어지는 주류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에서 작성한 일반분류표(Foskett 1970)는 원래 관습적인 주류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Entities와 Attributes(Attributes는 Properties 와 Processes를 모두 포함)라는 두 facet의 구조를 위하여 이를 포기하게 되었다.

현재는 학문적 주류가 분류표의 편찬자와 개정자에게 일으키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이로

인하여 분명히 더 용이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반론이 있다. 첫 번째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열거순서를 적용해야 하는데, 선정된 열거순서가 모든 주제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주제에서 동일한 개념을 열거하게 되는 관습적인 방법보다 더 긴 기호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사실이다(Austin 1972). 세 번째 반론은 그것은 단지 문제를 한 단계 뒤로 옮겨놓을 뿐이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Entities와 Attributes라는 두 facet으로 이루어진 일반분류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Entities-Attributes의 열거순서를 선택하게 되면, 구체적인 분류표를 적용하여 생겨나는 문헌의 순서와 매우 유사한 순서를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가 다른 순서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측면적 분류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순서와 매우 유사하게 될 것이다. Palm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그룹(즉 CRG)은 말하자면, 현재의 유통 상태에서 주류의 초기구성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겨우 뒷문을 통하여 주류를 다시 도입하게 되는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인가(Palmer 1962).

5. 결론

지식분류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의를 내린 후 학문명칭을 부여한다. 문헌분류법은 지식기반 원칙이므로 학문명칭을 실용성 우선으로 하여

주류명을 설정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분류법과 문헌분류법은 상보성을 지닌다. 문헌분류법에서 주류설정의 원칙과 원리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법에서 지식의 최초의 구분은 주류(main class)를 창출하는 일이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학문분류와 등가이다. 그러나 주류의 설정은 지식구분과 동일한 순차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류를 구성하는 일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느 분류법이든 두 가지 관념이 기본이 되는데 군집화와 순차화이다. 그렇다면 군집화는 주류명을 부여하는 단계라면, 순차화는 주류순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헌분류표에 지식계의 모든 것을 포함시키려고 고려한다면, 첫 단계로 지식의 주요 분과(주류)라고 생각한 것을 면밀히 계획해야 한다. 분과를 결정했다면, 각각의 분과에 명칭 또는 분류용어를 부여하여야 한다. 분류용어가 바로 주류명이다.

셋째, 심진식분류표에서 주류는 1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능력이 적고, 지식을 10개의 주류 안에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인위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기 힘들고, 지식의 확장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이 발생해도 그 영역을 주류로 배정하기 힘들어 관련 주류에 흡수되므로 주제배열에 비논리적인 곳이 많고 주류와 하위류의 배치 및 상하계층관계가 불균형하다. 그러나 비 심진식 분류표는 각 분류표마다 다양하게 주류가 구성되어 있어 자관에 맞는 분류표를 알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주류의 수도 한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삽입이 용이하고, 확장된 학문영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류로 배정할 수 있으므로 분류표가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러나 주류수의 많고 적음이 문헌분류법의 논리성과 합일된 것은 아니다. 학문발전과정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주류설정에 철학적 이론 및 정확성은 실제적 유용성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문헌분류법이 탄생된 이 시기에 과학지식에 대해 새로 수용되어진 관념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적(pragmatic)' 지식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효용'이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의미, 그리고 절대적, 원칙적으로 확실한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류방식의 변화로 지식의 지형도를 바꾸고 교육기관들을 재조직화 하는 방향으로 그 영향력이 진전되어 지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남태우. 1994. 『DDC초판과 2판의 비교연구. 문헌정보학논총; 이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구미무역(주). 본 논문을 전개시

킨 것임.
사공철.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세계철학대사전』. 1987. 서울: 교육출판공사.
- 岩淵泰郎 編著. 1998. 『資料分類概説』.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 渡邊正亥 監修. 1984. 『資料分類法』. 東京: 東京書籍(株).
- Austin, D. 1972. *Trends towards a Compatible General System*. Maltby, A. Classification in the 1970's. Bingley.
- Bliss, H. E. 1939.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and the subject-approach to books*, 2nd ed. New York: The H. W Wilson Company.
- Brown, James Duff. 1939. *Subject Classification*. 3rd ed. by. James D. Steward Grafton.
- Buchanan, B. 1979.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live Bingley.
- Buchanan, Brian. 정필모, 오동근 공역.(1989) 『문헌분류이론』. 서울: 구미무역.
- Comaromi, J. P. 1876. *The Eighteen Edi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lbany, Forest press.
- Dawe, G. G. ed. 1932. *Melvil Dewey : seer : inspirer : doer, 1851-1931*. N. Y. Lake Placid Club.
- Dewey, M. 1876.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est.
- Dewey, M. 1885.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 Index for arranging cataloging and indexing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and for pamphlets, clippings, notes, scrap books, index rerums, etc.*, 2nd ed. Boston, Library Bureau.
- Dewey, M. 1886. "The Decimal classification : A Reply to the Duet." *Lib. Journal*, Vol.11.
- Dewey, M. 1920. *Lib. Journal*, Vol.45, no.4.
- Douglas, M. P. 1960. 사서교사핸드북크 = *The teacher-Librarian's Handbook*. 김태울 역, 서울, 연세대학교.
- Dowing, Joel C. 1977. *The role of the editorial police committee in the development of the DDC, in Dewey International : papers given at the European Centenary Seminar on the DDC held at Banbury, England, 26-30, Sept. 1976*, Ed. by J. C. Downing and M. yelland. London, LA.
- Durkheim, E. 1912.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English translation, New York, 1961.
- Dutta, D. N. 1978. *Library Classification Manual*. Calcutta, The World Press private limited.
- Farradane, J. et al. 1966. *Information Retrieval by Relational Indexing*. London. City University.
- Foskett, D. J. 1970. *Classification for a General Index Language*. London, Library Association.
- Foskett, D. J. 1961. *Classification and Intergrative Levels*.
- Foskett, D. J. 1963. *classification and indexing of social sciences*.
- Foskett, D. J. and Palmer, B. I. *Sayer's Me-*

- morial Vplume. Library Association.
- Graziano, E. E. 1959. "Hegel's philosophy as basis for the Dewey Classification Schedules." *Libri*, Vol.9, no.1.
- Jyothirmayi, S. 1996. "Basic subjects in colon classification from edition one to seven: A critical study."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33 No.1.
- Keenan, Stella & Colin Johnston, 2000. *Concise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nd ed., London, Bowker-Saur.
- Kumar, K. 1979.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 Lane, W. C. 1885. Report on Classification, 1883-1885, ALA., Lake George Conference, 1885, *Proceedings*. In *Library Journal*, X.
- Maltby, A. 1978.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 Mills, J.(1962)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London, Chapman & Hall.
- Mills, J. 1960.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hapman & Hall.
- Naude, G. with an Introduction by Archer Taylor. 1950. *Advice on Establishing a Libr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eelameghan, A. 1973. "Primary basic subject by fission."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Bangalore, Documen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 Ohdedar, A. K. & Sengupta, B. 1977. *Library Classification*. Calcutta, The world press private.
- Palmer, Bernard. 1962. *Itself an Education*. Library Association.
- Prytherch, Ray. 1995. *Harrod's Librarians' Glossary*. 8th ed., USA, Ashgate Pub. Co.
- Richardson, E. C. 1930.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The Shore String Press, INC., Hamden.
- Ranganathan, S. R. 1960. *Colon Classification*. 6th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Ranganathan, S. R. 193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Bpmbay: London, Asia Publishing House.
- Ranganathan, S. R. 1965. "General and Specia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Research: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1964*, Copenhagen, Munksgaars.
- Richardson, E. C. 1885. King Leo's Classification ; or, How the King of the Bests Organized His Kingdom. ALA., Lake George Conference, 1885, *Proceedings*. In *Library Journal*, X.
- Richardson, E. C. 1964.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3rd ed. The Shore String Press, INC., Hamden, 1964)

Savage, E. A.(1946) *Manual of book classification and display for public libraries*. London, Allen & Unwim.

Sayers(1954)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Grafton.

Sayers', W. C. B.(1915) *Cannons of Classification*. London, Grafton.

Sayers', W. C. B.(1955)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9th ed. London, Grafton.

Sayers', W. C. Berwick(1926)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and Bibliographers*. London, Garfton.

U. S. Bureau of education.(1876)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ir History, Condition and Management, Special Report*. Washington, GPO), part 1.

Wynar, Bohdan S.(1967)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Vann, Sarah K.(1964) *Toward the Seventeenth Dewey*. *LRTS*. Vol.8, no.2.

Young, Heartill(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